

최성진(崔成珍) 장로/목회자(1875-미상)



평북 구성군 방현그리스도의 교회 장로 최성진(1937년). 평북 정주군 용포동교회 및 문인동교회를 동시에 목회자로 섬겼다.
[출처: Tokyo Christian]

최성진(崔成珍) 장로는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면소재지에 살았으며 그곳 방현 기독교(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였다가 정주군의 용포동 그리스도의 교회와 문인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목회자로 동시에 섬겼다. 최성진은 제과업자(菓子職)였다. 최성진은 45세 때인 1919년 3월 7일 최예락(崔禮洛)으로부터 경성민회가 보내온 독립선언서 500매, 주의서(主意書) 500매, 관련서류 및 깃발을 전달받아 양인항(梁仁恒)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기를 만들었으며, 11일 구성군 남시(南市)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최성진은 11일 오후 2시경 최예락, 양인항, 안승열(安承悅), 홍양천(洪陽天) 등이 시장 중앙에 태극기를 높이 달고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주도하는 동안 선언서와 주의서를 배포하였다. 이때 남시에 모여 만세를 외친 사람이 1,000여 명이였다. 이날 최성진은 일본 헌병들의 발포로 어깨뼈가 부서졌다. 최성진은 체포되어 동년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 정부는 최성진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으나 남북분단으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여 '독립유공포상자 중 훈장 미전수자 명단'에 올라있다. 최성진(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와룡동 427번지)의 포교계와 문인동교회(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 문인동 510번지)와 용포동교회(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17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는 1937년 5월 12일 개설되었다. 최성진은 도쿄 요츠야선교부로부터 매달 8불 50센트를 보조받았다.

참고문헌

Tokyo Christian, Jul.1937; Sep.1937; Apr.1939; 「조선총독부관보」 1937.6.18.: 공훈전자자료관 및 독립운동판결문(최성진);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

독립운동판결문

大正八年刑上第三八九號	判決書	平安北道龜城郡方峴面下丹洞 醫生	被告人 崔禮洛	四十九年 高等法院	刑事判決原本	同道同郡同面同洞無職	被告人 梁仁恒	五十年	同道同郡同面同洞梁子職	被告人 崔成珍	四十五年
-------------	-----	---------------------	---------	--------------	--------	------------	---------	-----	-------------	---------	------

0209

 독립기념관

최성진은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리 출신으로, 1919년 당시 45세(1875년생)였으며 과자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는 의생 최예락, 양인항과 함께 구성군 남시에서 약 1천여 명의 군중을 모아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